

감사와 사랑으로 물드는 가을!

11월 16일까지 '2023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10월 30일부터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

온누리의 가을이 감사와 사랑으로 물들고 있다. 연말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2023 엔젤트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고,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23 엔젤트리 대상자는 11월 16일(목)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나 QR 코드,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누리교회 공동체, 직장, 이웃,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엔젤트리 대상자로 선정하면 된다.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신청서는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만 작성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엔젤트리 대상자 모집 신청서에는 이웃의 정확한 주소와 사연, 받고 싶은 선물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의 이름, 소속공동체 및 다락방, 연락처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선물은 5만 원 이하(꽃, 음식, 현금 금지)여야 한다. 2023 엔젤트리 사연은 11월 18일(토)부터 2주 동안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로비에 게시할 예정이다. 캠퍼스는 상황에 맞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배송도 시작된다. 10월 30일(월)부터 온누리교회 협력 농어촌교회에서 수확한 쌀을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 성도, 교회 밖 이웃, 기관



사진은 지난해 엔젤트리에 천사카드를 걸고있는 성도(왼쪽),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을 포장하고 있는 협력 농어촌교회 성도(오른쪽).

등에 현지에서 직접 택배로 발송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한 해 동안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뜻깊은 행사다. 2020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사르밧 프로젝트에서는 2억 4천만 원을 현금했고, 개인과 기관 2010곳에 '감

사의 쌀'을 전달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

인구문제극복 및 출생률 향상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심각한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가 10월 28일(토)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리더십과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교회 차원의 실천 방안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다.

온누리 미래&가족 축제(OFFC)에서는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이 시대 결혼 및 출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와 해결 방법', 이정민 교수(한동대) '성경적 자녀교육', 신무환 장로 '인구절벽, 성경적 세계관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근본 원인과 해결을 위한 주제 강의도 이어졌다. 이재훈 위임목사 '인구문제, 영적 각성 및 의미', 이철 장로 '대한민국 인구문제와 교회 차원의 문제 해결 방향', 박태성 집사 '온누리 인구 문제 설문 분석 및 시사점'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패널 토의도 이어졌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마지막 일주일!

11월 5일까지 매일 오전 9시 명동성당 들머리 앞

낙태 종식을 위한 국제 기도 캠페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11월 5일(일)까지 명동성당 들머리 앞(서울 중구 명동길 66, 농협은행 명동지점 건너편)에서 이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기도 캠페인을 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서는 낙태의 위험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기도하는 '현장 릴레이 기도'와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낙태 종식과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다.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진행되는 '현장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40daysforlife.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날짜에 정해진 장소를 찾아가 비치된 기도문을 읽고,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은 가장 첫 번째 인권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 된다.

'매일 기도'에 동참하고 싶은 성도들은 홈페이지에서 기도문을 다운로드 받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문에는 미국과 한국의 낙태 현황, 기독교 생명윤리 관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의 기도제목 등이 담겨 있다.

문의: 02-703-4620

/ 홍하영 기자

한국로잔위원회,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

한국로잔위원회가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를 개최한다. 오는 11월 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점심 제공) '순종하는 신앙: 로잔운동, 지상대위임령, 총체적 선교'를 주제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2023년 제4차 선교적 대화'에서는 제3차 로잔대회 신학위원장으로 케이프타운 서약을 주도한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랭햄 파트너십 국제 대표)가 강의한다.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주제인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와 밀접하게 연관된 '지상대위임령'과 '총체적 선교'를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풀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신청은 10월 30일(월)까지 상단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비는 없다. 로잔언약에 동의하고, 로잔운동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 선착순 500명 모집한다.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은 다른 한편으로 거래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처럼 명확하게 주고받는 거래도 있지만, 삶의 소중한 것을 내어 주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래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내어 주고 더 소중한 것을 얻는 거래가 있고, 소중한 것을 내어 주었음에도 하찮은 것 또는 헛된 것을 얻는 거래도 있습니다.

구약 <전도서> 저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소중한 삶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하늘 아래 일어나는 많은 일을 탐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많은 사업을 벌여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금하지 않고 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소중한 부분들을 내어 주고 얻고자 했던 것을 얻지 못하고, “해 아래 새것이 없으며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영원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그 어떤 수고와 거래도 헛됨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영원의 관점으로 모든 인생의 선택을 추구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선택이 무엇을 내어 주고 무엇을 얻는 거래인가? 소중한 삶을 내어 주고 더 소중한 미래의 삶을 얻는가? 이 땅의 것을 내어 주고 영원한 삶을 얻고, 영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인간의 질서 뛰어넘는 부르심 주신 이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거래를 합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거래입니다. 그들이 왜 불행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함께 태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삭의 두 자녀가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날 때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기도로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할 때 40세였는데 19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21절).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고 나오는 첫 번째 기록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시키시고 성장시키신 것처럼, 이삭의 믿음도 확인하고 성장시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에 때로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소중한

소중한 것을 잃는 거래

창세기 25:19~34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두 아이가 태에서 싸우고 있을 때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계시의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네 태 안에 있다. 네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23절).

리브가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당시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를 뒤집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메시지가 던져지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이 루 말 할 수 없는 혁명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게 당시 질서를 뒤집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에서와 야곱의 모든 일을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시지만, 전통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자유롭게 일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강조할 때 이 사건을 인용해서 중요한 근거 구절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리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롬 9:10-12).

하나님이 리브가의 쌍둥이 자녀에게 당시 세계관과 관습, 인간의 전통을 뒤집는 계시와 선택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는 뜻으로 인해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인간의 어떤 행위, 반응, 조건, 선과 악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통해 주시는 복은 인간에게 나오는 어떤 조건이나 행위, 반응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분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먼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질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은 의

로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나를 주목하시고 부르신 것입니까?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근거가 아닙니다.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은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부르심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질서를 뛰어넘는 부르심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자녀로부터 거리가 먼 아버지, 어느 한 자녀에게 밀착된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든 선택의 관점을 하나님의 계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그들은 마음을 합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상실하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삭의 두 자녀에게서 일어난 불행한 거래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히 알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갈등은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27~28절).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른 기질과 성격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아주 잘하는 외향적인 남성적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는 내성적 인물이자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것은 단지 성품이 침착하다, 말이 없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성격’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느 한 자녀에게 사랑을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라고 설명합니다. 에서에 대한 이삭의 사랑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습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깨닫고, 묵묵히 인내하며 순종할 때
인간적인 방법, 부정한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인내로 사십시오.”

니다. 이삭이 사랑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에서가 아니라 고기였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를 보고 계
속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냥에 집중
했고, 결국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 시절 자녀의 어떤 행위
에 박수를 쳐 주고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진
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사
랑을 받고 싶어서, 자신이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 길
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
았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야곱을 가리켜 ‘
마더 콤플렉스의 소유자’ 라고 했습니다. 어
머니가 자신의 세계에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망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삭
과 리브가는 요즘 학자들이 말하는 ‘역기능
가정’ 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 자녀로부터
거리가 먼 아버지, 어느 한 자녀에게 밀착된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깊은 친밀함을 잃어버리고, 대화를 잃어버리
고, 두 자녀 양육에 대한 공통점과 자녀 양육
철학을 상실했습니다. 이삭은 그저 고기를 좋
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이
삭에게 소외받는 야곱에게 집착했습니다. 하
나님의 계시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 야곱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에서는 미래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가정의 화목과 우애를 잃었다

이 배경에서 자란 형제가 불행한 거래를 하
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
오는 때를 맞춰 야곱이 죽을 만들고 있습니

다.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면 좋았
겠지만, 그 의도가 정반대였습니다. 야곱은
일종의 ‘부비트랩’ 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부
비’ 는 ‘바보’ 라는 뜻이고, ‘트랩’ 은 ‘올가미
, ‘덫’ 을 의미합니다. 바보들이 걸려드는 덫,
무심코 만지고 들 수 있는 것에 폭탄이 있는
것을 ‘부비트랩’ 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쓰
는 용어입니다. 야곱은 죽을 부비트랩으로 만
들어놓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배고픔을 유난히 참지 못하
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에
서를 야곱이 이용한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
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나?’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
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32~33절).

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미래 자신에
게 주어질 복과 즉시 주어진 필요를 바꾼 것
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만족과 순간의 필요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숙이 무엇입니까? 즐거움을 뒤로
미루는 능력입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뒤로 미
루고, 현재의 고통을 감당하는 게 성숙입니
다. 그에게는 성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냐?” 라고 말했습니다.

에서의 ‘죽을 지경인데’ 라는 말에서 그가
중독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중독이든 그 증상은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이 그렇습니다. 에서가 중독 증세를 보이
고 있습니다. 중독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
까? 어떤 대상에 집착함으로써 하나님에 대

한 갈망을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에서가 중독에 빠진 세속적인 사람이라면
야곱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
습니다. 야곱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
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
리석은 에서를 속였지만 장자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는 말씀
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문
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인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돕지 않으면 이뤄지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불의한 속
임수,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님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할 수 없습니다. 야
곱의 교활한 방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에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
하는데 아닙니다. 유다의 죄이고, 야곱의 죄
입니다.

형제의 거래에서 에서는 어리석음과 무지
함으로 고난을 겪고, 야곱은 교활함으로 인해
서 고난을 겪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 않은 방
법으로 빼앗고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
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기다림과 인내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모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
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권리라는
미래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가정의 화
목과 형제의 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에
서와 야곱은 서로에게 불행한 거래를 한 것입
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온 한 흑인 주교가 어느 콘
퍼런스에서 이런 의미 깊은 말을 했습니다.

“백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왔을 때 그들은 성

경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
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땅을 가지고 있고 우
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이 거래에서 손해 본 쪽이 어디입니까? 성
경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성경을 버리고 땅을
가졌고, 땅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땅을 잃
어버렸지만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생에 내어 주고 무엇을 얻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순간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
해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축복과 가능성을 잃
어버리지 않는 선택과 거래를 하십시오. 야곱
처럼 야심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 관계를 깨뜨
리는 어리석은 거래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묵묵히 인내하며 순종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부정한 세상적
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
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것을 내어 드릴 때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는 인생의
선택과 거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의 불행한 거래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관점과 기준에 휩쓸려

불행한 미래를 선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복음 전파와 문화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서사(메타네러티브)를 ‘창조-타락-구속-완성’의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님이 물질적 우주와 모든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의 최고봉이 인간의 창조이며, 그 인간에게 첫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는 이를 문화명령 혹은 생육/문화명령이라 부른다.

문화 창조를 위임받은 인간(창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6-28)고 하신 것이 문화명령의 내용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에게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부일처의 가정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가 되게 하셨다. 아담이 처음으로 한 일은 모든 생명체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다. 그것은 생명체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창조적인 일이었고, 현대 학문으로 말하면 생물분류학에 해당한다. 또 자신의 배필인 하와에 대한 찬사는 문학작품 창성의 성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감당할 창의적인 능력을 부여하셨고, 그것을 세상 속에서 발휘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하셨다.

문화 파괴자가 된 인간(타락): 그러나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인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중에도 인간은 농경문화와 목축문화를 형성하며 수급과 통소 같은 악기도 만드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적 사역을 이어갔다. 그러나 죄로 인한 살인과 성적 타락의 문화로 노아의 홍수라는 처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문화로 인해 언어가 혼란해지며 지면에 흩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원래 부여하신 창조적인 문화와 함께 죄로 인한 파괴적인 문화가 인간 세상에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후 성경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가 형성한 문화의 충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복음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의 변혁에 앞장서야 한다.

복음이신 예수(구속): 복음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셨으며,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셨다는 것과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죄 씻음과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이를 전파할 임무가 주어졌다. 우리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따라서 세속의 문화를 복음의 전달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복음 전파가 방해받는다는 주변의 연약한 지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복음에 뿌리내린 문화(완성): 수년 전 세계관 강의 이후 받은 질문이 생각난다. 어떤 청년이 전자댄스음악(EDM, electronic dance music)이 유행인데 이런 음악을 교회찬양에 도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쉽게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사실 음악, 미술, 시, 같은 예술은 가치중립적인 수단이다. 거기에 어떤 생각을 실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다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물론 익숙한 장르의 음악을 매개로 복음의 메시지를 실어 전달하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초신자 중에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주로 접하던 댄스클럽을 떠올려 시험에 들게 한다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역효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뿌리를 두고 형성하는 문화의 열매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세속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다. 미국의 신학자 존 프레임(John Frame)은 “문화란 사회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이상을 따라 만드는 것이다. 이상을 제시하는 것은 믿음이나 신념, 즉 종교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게 세속적 문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예배가 기독교 문화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화란 우리의 마음에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방식이다.

타락한 인간은 죄로 일그러진 형상과 악한 마음의 산물이 드러나는 문화를 형성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드러난 문화를 통해 스스로 혹은 후속세대를 지배하면서 우상 숭배적인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에 이르게 하는 길은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복음에 뿌리를 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의 변혁에 앞장서야 한다.

세계관 운동이 필요한 이유

“우리의 눈은 밝습니까?”

조준목 목사
(이수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나는 아이들과 함께 ‘암흑 속에서의 전투 놀이’를 종종 즐긴다. 좁은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즐기는 놀이다. 환하게 불이 들어온 방에서 갑자기 불을 끄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곤 깜깜해진 방 안에서 서로를 찾는 게 재미다. 서로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심스레 방을 돌아다니다가 상대를 발견하면 신나게 끌어안고 깔깔대며 레슬링을 한다. 이 게임의 매력은 언제 어디서 상대를 만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있다. 이 경험은 아이들에게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즐거운 추억이 된다. 불이 꺼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온통 까맣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가야 할 방향을 알기는커녕 내가 딛고 서 있는 위치조차 의심스러워진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때가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실제로 살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기도 한다.

크리스천으로서 요즘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을 느끼지 않는가? 예를 들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동성애 이슈를 볼 때 우리는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도대체 이 일들이 왜 급격한 이슈가 되고 있는지, 모든 매체와 문화 속에

“세계관을 이해하면 많은 이슈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밝히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된다.”

서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등도 마찬가지다. 이 이슈들이 어디에서 등장해 이토록 갑자기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마치 불이 꺼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 안에 내가 서 있는 자리조차 확인할 수 없는 경험 같고, 어디서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상대를 마주하는 것 같다.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마 6:22-23)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위에서 언급한 혼란과 혼돈은 바로 어두워진 눈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이다. 사회의 많은 이슈가 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우리 앞에 와있는지 보지 못한다면 생각과 마음이 어두운 채로 적절한 반응과 대응을 할 수 없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길을 소개하고 싶다.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고 발전한 것은 19세기 유럽을 덮었던 어둠 때문이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종교적 영향력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탈기독교화가 이루어졌다. 반기독교적 시대정신이 급격히 확산했고, 전통적 신학과 신앙이 여러 방면에서 거센 도전을 마주해야 했다. 많은 신앙인이 그 흐름 속에 믿음의 근거와 지지대를 잃어버렸다. 이 시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제임스 오어’와 네덜란드 정치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이들이 어두워져 가는 시대의 눈을 뜨게 하는 무기로 ‘세계관’을 채택했다.

세계관을 이해하면 많은 이슈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 밝히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된다. 어두운 시대에서 눈을 뜨고 싶지 않은가? 그러려면 세계관을 이해해야 한다. 밝아진 눈으로 나의 대적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분명히 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해야 한다. 눈이 밝아진 이들을 통해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는다.

온누리세계관학교

일시: 11월 7일~12월 5일 매주 화 오후 8시~9시 20분

장소: Zoom, 12월 5일 오후 7시 30분~9시 현장강의(서빙고 콘서트홀)

문의: 02-3215-3268

‘온누리 감사 릴레이’ 1. 신용산공동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숨은 보석들!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 이호영, 허선영 순장

잘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다. 헌신과 사랑으로 한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의 한결같은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느끼고, 잊고 지낼 때가 있다. 온누리 감사 릴레이 지면을 빌려 공동체, 다락방, 순, 사역팀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온누리 감사 릴레이 첫 번째 주인공은 신용산공동체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과 이호영, 허선영 순장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한결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한 영혼과 교회를 세우는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 가족(왼쪽)과 이호영, 허선영 순장 가족(오른쪽).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이 막내 승찬이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올해 여섯 살 된 승찬이는 다운증후군이다.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은 조금 특별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진짜 섬김을 배웠다.

“승찬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섬김의 자리 대해 깊이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찬이가 태어나면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애다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도 느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덕분에 진짜 섬김을 배웠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했다. 섬김을 심었다니 섬김이 났다. 지영일, 함정

임 다락방장은 승찬이를 양육하면서 공동체 식구들에게 받은 배려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다. 다운증후군 자녀 부모 모임이나 재활병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온누리교회로 초청하고 있다. 공동체 지체의 아픈 아이들도 함께 돌보며 양육하고 있다.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의 순에는 아픈 아이들이 많다. 특수한 모임을 하는 순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우울한 이야기가 가득한 순일 것 같지만, 결코 아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순이다.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는 순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빵점짜리 순장? 백점짜리 순장!

이호영, 허선영 순장과의 만남은 정말 유쾌했다. 순장이 겪는 힘든 점을 가감 없이 이야기

하며 “저는 빵점짜리 순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진솔해 보였다. 힘들다는 말 뒤에 따라오는 웃음이 인상 깊었다. 이호영, 허선영 순장이 힘들고 고된 섬김을 계속 이어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호영, 허선영 순장은 3년 전부터 순장으로 섬겼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일주일 전이었다. 새 순원들과 순예배를 드린 지 일주일 만에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해야 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순예배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래도 이호영, 허선영 순장은 순예배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한 영혼을 기다렸다.

그토록 기다리던 한 영혼이 왔다. 병원에서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온 성도였다. 새신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나눔과 교제를 하면서 섬겼다. 그 새신자는 순예배에 꾸준히 참여하는 순원으로 성장했다. 찾아온 한 영혼

을 돌보려고 몸도 아끼지 않았다. 이호영 순장은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고도 함께 순예배를 드렸다. 태블릿PC를 침대에 연결하고 누워서 순예배를 드렸다. 순원들이 “제발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였다.

순과 순원을 정말 사랑하는 이호영, 허선영 순장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다. 부부의 매력이자 이들 부부를 ‘백점짜리 순장’으로 만드는 비결이다.

“다들 저희 부부가 대단하다고, 고생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칭찬이 참 부끄럽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순원들과 늘 함께 배우고, 매일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 부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순원들에게 보여주는 게 임무입니다. 친구 같은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 ‘온누리 감사 릴레이’ 사연 보내는 곳
hha0@onnuri.org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님께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안녕하세요. 다락방장님 부부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게 된 배예란 순도입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도 “교회에 나가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였습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며 살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장애인을 낳았어’, ‘이제 장애인 가족이 된 거야’라고 생각하며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너지던 저와 가정을 지영일, 함정임 다락방장님이 붙잡아 주시고, 저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보내주시던 온누리교회 사랑부 영상이 기억납니다. 무대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사랑부 아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해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잘 키워보자”고 위

로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일에 저희 가정을 온누리교회로 초청해주셨습니다. 멀리서 오는 저희를 위해 주차 공간을 마련해주시고, 우리말 성경책을 선물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주신 말씀 카드와 편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장님 부부의 사랑과 헌신은 저희가 온누리교회에 잘 정착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부족하지만 순장으로 섬기게 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 짚을 떼고, 걸음마를 시작한 풋내기 성도에게 좋은 신앙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저희 가정에 베풀어주셨던 사랑을 저도 순원들에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배예란 순도(신용산공동체)

이호영, 허선영 순장님께

“순장님은 교회의 꽃”

이호영, 허선영 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현 다락방장입니다. 제가 올해 초 처음으로 다락방장을 맡게 되었을 때가 기억납니다. 다락방 식구들의 순예배 참여 현황을 살펴보다가 두 분이 계신 순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적은 인원이 예배드리는 순이었습니다. 참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호영 순장님이 선수를 치셨습니다.

“다락방장님, 이제 순장을 내려놓고 조금 쉬고 싶습니다.”

아마 다락방장이 바뀌는 순간이 순장 자리를 내려놓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순장을 내려놓으면 다시 맡는 게 쉽지 않은 일임을 알기에 계속 맡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게도 두 분이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두 분의 헌신과 순종이 참 빛납니다. 순장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순장님 부부가 얼마나 많은 대화와 기도로 결단하셨는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끝까지 붙잡겠다는 순장님 부부의 결단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장을 처음 맡은 저에게 이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소명과 다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장님, 제가 가끔 부탁드릴 때마다 “우리 순모님과 상의해볼게요”라는 멘트가 얼마나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좋은 순장이 좋은 다락방장과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순장님은 교회의 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실함을 가르쳐 주신 이호영, 허선영 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김주현 다락방장(신용산공동체)

맛있는 말씀 해설

“...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마 24:7)

올해 2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강진에 이어 9월에는 모로코에도 강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생겼다. 이 두 번의 강진이 발생할 때마다 하늘에 정체를 모를 빛이 발생해 화제가 되었다. ‘지진광’이라고 추정되는 이 빛이 왜 발생하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여기는 과학자들도 많다. 그런데 지진과 지진광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마 24:7)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지진광이 혹시 하늘의 징조(눅 21:11)는 아닌지 두려운 마음도 든다.

이 시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지판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진에 관한 과학적 탐구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와 관련해 지진을 언급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은 그 자체 위력도 대단하지만, 상상하기 힘든 심리적인 공포를 안겨준다. 내가 땅 위에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당연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지진은 가장 안정적인 땅을 흔들으로써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거라 믿는 많은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예수님이 지진과 함께 언급하신 것은 ‘전쟁’, ‘기근’, ‘전염병’ 등이다(눅 21:11). 이 시대는 과거보다 강력하고 참혹한 지진을 비롯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모두 볼 수 있는 것 같다. 이 사건들로 인해 세상은 그전에 누리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등으로 평화는 당연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각 나라를 단절시켜 재화와 제품이 자유롭게 유통되던 세계화 시대를 빠르게 끝내버렸다. 전염병 시대 뿌려졌던 엄청난 돈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저금리의 풍요로운 시대가 사라진 것이다.

멀게만 느껴졌던 기후변화 위기를 체감하는 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 등의 기후재난은 기후변

화가 코앞의 위기임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이 영양부족 곧, ‘기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폭우와 가뭄으로 농도가 사라져 살 곳을 잃어버린 수많은 굶주린 기후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내전으로 인한 난민들과 달리 이들의 굶주림은 주변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의 할 일이 “깨어 기도하며(눅 21:36), 충성되고 지혜롭게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마 24:45)”이라고 말씀하셨다. 동시에 미혹과 불법이 성하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거라고 경고하셨다(마 24:11, 12).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는 시대적 흐름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입에서 뱉어낼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것은 사랑이 식은 것이다. 교회에 출석은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믿음, 뜨거운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자신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면 지진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이다(히 12:28). 굶주린 자의 외침이 들릴 때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 먹일 것이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지진,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드린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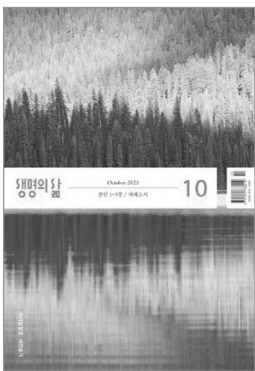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승리하는 성도의 지혜로운 일상

10월 30일~11월 5일
〈에베소서〉 6:10~24,
〈잠언〉 10:1~12:16



묵상포인트 1: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의 상대는 사탄과 그 수하에 있는 악의 무리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굳건히 서기 위해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기가 어

떤 것들인지 묵상하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다. 성도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가슴받이),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할 것과 간혀 있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다.

묵상포인트 2: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모음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질서 안에 사는 의인과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 언어와 삶의 태도에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의인과 악인의 최후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대조하며 묵상하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나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게으른 자는 가난해지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여러 사람을 살리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패역을 말한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훈계를 지킴으로 생명 길로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하게 된다. 하나님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일 뿐이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를 뿐이다. 악인은 시련의 회오리바람 앞에 사라질 존재이나 의인은 말씀 위에서 견고함을 누린다.

묵상포인트 3: 성도의 언어생활과 재물 사용이 영적 생활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신다. 정직하고 성실한지, 불의하고 게으른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하는지 살피신다. 성도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성실을 기뻐하시고, 사악한 자는 그 악한 행위로 인해 스스로 망하게 하신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인해 무너진다. 덕이 있는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을 얻지만,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재물을 의지하면 가난해지지만, 구제하는 자는 풍족함을 누린다. 남에게 나눠 줘도 더 부유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은 물질의 주권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쏟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권고를 듣고 어려움을 견딘다.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통해 더 지혜로워지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정죄와 멸시를 받는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사람을 향한 싸움을 멈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마귀의 악한 간계가 무엇인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되도록 단련하자. ▶내가 부지런히 살피고 일해서 제때 추수해야 할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점검하자. ▶지혜로운 입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달라고 기도하자. 비방이나 험담의 말을 버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자. ▶내 삶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없는지 돌아보자.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항상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기로 다짐하자.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살피고 적용하자. ▶가족이나 공동체 지체의 조인과 충고를 귀담아 듣고 겸손히 배우며 성장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우리가 함께 하는 기도

포천 하랑센터를 위해서!

포천 하랑센터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하랑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 차세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 은혜로 더 넓고 안전한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차세대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하랑센터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랑센터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가정에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이들이 하랑센터에서 마음껏 꿈꾸고,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어 살지 않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센터장님을 비롯한 하랑센터 모든 구성원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김의래 집사(포천 하랑센터 팀장)



*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멘토가 멘티에게

돈의 유.전.정.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왠지
욕심처럼 느껴집니다.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
도해도 관장을까요?”

“내가 주께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영과 거짓
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
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잠 30:7-8).

가난하면 도둑질할까? 부유하면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드린 아굴의
기도다. 생계와 학업을 꾸려갈 때 돈의 부족함
을 느껴본 사람은 그 필요성과 귀중함을 잘 안
다. ‘돈의 유전정보’를 살펴보면 돈과 신
앙의 핵심사항을 나누려고 한다.

‘유’, 돈은 유용하다. 돈의 필요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태초에 물질세계를 창
조하셨고, 모두가 농부나 목축업만 하도록 창
조하지 않으셨다. 각자 여러 분야에 일하면서
물건과 일을 교환하고, 화폐 경제의 발전은 하
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편리하고 자연스
러운 일이다. 성경에도 물질에 대해 긍정적으
로 표현한 말씀이 있다. 돈은 범사에 이용되고

(전 10:19), 재물은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보
상이다(잠 22:4).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시
고, 제 몫을 받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
님의 선물이다(전 5:19). 〈시편〉 119편에서는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도를
즐거워하였다”고 고백한다. 풍요함은 우리에
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다. 돈은 일상에 유익함도 주지만, 복음을

“먼저 자신이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다룰 수 있도록 그릇을 키워야 한다.”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
용된다.

‘전’, 돈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행복과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기뻐하신다. 하지만 행
복과 풍요함을 채우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돈은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일
수 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과 재
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표현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고, 믿음을 떠나게 한
다’(딤후 6:10), ‘썩은 재물이 불과 같이 너희

살을 삼키리라’(약 5:3)는 말씀도 기억해야 한
다.

‘정’,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나는 직장
생활 34년 동안 돈을 다루었다. 1998년부터 벤
처기업의 파트너로 일하다가 9년 전부터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VC) 회사를 경
영하고 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성경에서
도 투자는 권유하지만, 투기는 경고한다. 성실

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
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잠 28:20).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하
나님이 기뻐하신다(잠 11:1). 돈을 구하는 동
기의 순수함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직함도 중요하다.

‘보’, 돈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돈은 쓰
는 것에 따라 이 땅에서의 자람이나 정욕의 도
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영원히 썩지 않는 하
나님 나라의 보물일 수도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다(잠 19:17).
선을 행하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딤후 6:18)가
된다면 천국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 삭개오가
재물에 대해 회개했을 때 구원을 받았다. 돈이
라는 보물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처럼 사용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된다. 거룩한 손해는
하늘의 상급이다.

‘돈의 유전정보’를 확실히 파악해서 기도
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란다. 먼저 자신이 재
물을 하나님 뜻대로 쓰고, 다룰 수 있도록 그
릇을 키워야 한다. 그릇은 하나님 나라와 의
다. 우리의 그릇이 커질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보물을 부어주
신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이는 선교
적 재원이 늘 부족하
다. 담대한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갈망했으
면 좋겠다.



박기일 멘토
(길곡동체)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사고형도 좋고, 감정형도 좋다

부부는 서로 같은 점을 보면서 동질감을 느
끼고, 다른 점을 보면서 관점의 다양성과 이해
의 폭을 넓힌다. 관점이 충돌하면 “내 맘과 같
지 않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자
신과 다르게 느낄까?”라고 생각하며 관계적
스트레스를 받는다. 서로의 다른 점을 수용하
면 되는데, 쉽게 수용되지 않는 점들이 계속
충돌하며 부부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 어떤
상황을 보고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배우자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배우자는 크고 작은 갈
등이 있다.

부부가 함께 TV를 시청하고 있다. 반려견에
관한 감동적인 내용이다. 주인공이 유기되었
던 강아지를 잠시 돌봐주다가 외국에 입양 보
냈다. 몇 년이 지나 유기견을 보호했던 주인공
이 외국에 입양 보냈던 강아지를 찾아갔다. 시
간이 꽤 지났기에 못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무척 떨렸다. 마침내 주인공과 입양 보
낸 강아지가 만났다. 놀랍게도 그 강아지가 주
인공을 분명하게 기억했다. 재회의 반가움을
표현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전해졌다.

같은 영상을 보는데 부부의 반응이 너무 달
랐다. 아내는 주체하기 힘든 감동의 눈물을 흘
렸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당황
한다. 그리고 “아니, 왜 울어? 기쁜 일이잖아!”
라고 말한다. 남편의 이성적인 말을 들은 아내
가 “그냥 가만히 있어줘!”라고 한다. 이 장면
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내에게 이성적으로 반

응하는 남편을 향해 냉정한 조언을 하고 싶어
는 것이다.

서로를 더 알아가야 하는 결혼생활에서 상
대와 다르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
을 판단하기보다 배우고 이해하려는 관점으
로 바라보는 게 좋다.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조
언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삶의 관
점이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아내가 상황을 바
라보는 관점이 남편과 다르기에 서로 이해하
고 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느낌과 감정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배우자라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배우자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
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봤던 배
우자도 감정과 공감력이 극대화된 배우자를
이해해야 한다.

MBTI 연구소에 따르면, 판단 기능에서 서로
극단에 있는 경향을 사고형(Thinking)과 감
정형(Feeling)으로 구분한다. 사고형(Thinkin
g)은 주로 사건의 본질과 사실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상황을 보면서 논리를 추구하고, 분석
적이며,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다.
논리적인 관점으로 일어난 상황을 판단하고,
수용한다. 옳고 그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
방은 때론 판단만 하는 심판장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감정형은 사람 관계에 관심이
있다.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심정을
느껴보면서 설명하고 이해하려 한다. 포괄적,
상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에게 주는 의

미를 공감적으로 느끼고 이해하려고 한다.

사고형의 관점으로 상황과 사물을 이해하려
는 사람과 감정형인 관점으로 상황을 이해하
려는 사람은 판단 기능이 서로 달라서 불편함
과 당황스러움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남편
들은 사고형이 많고, 아내들은 감정형이 많다.
그러나 정형화된 것은 아니다. 아내가 사고형
인 경우도 있고, 남편이 감정형인 경우도 있
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판단 기능을 선호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성격검사는 검사 결과에 한 사람을 가두거
나 낙인찍는 게 목적이 아니다. 어떤 성격이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사
용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구나”라면서 자신
의 느낌과 생각을 충분히 표현하고, 자신과 다
른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도 긍정적으로 수용
해야 한다. 사고형과 감정형을 ‘판단 기능에
따른 양극적 선호 경향’이라고 한다. 일반적
으로 사람들은 공감 수준과 정도로 이해한다.
공감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으면 감정형인 ‘
F’라고 말한다. 이성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
거나 상대방의 감정선을 이성적으로 받아들
이면 ‘T’의 성향이라고 한다. “당신 T야?”라
는 말에는 다소 핀잔을 주는 듯한 뉘앙스가
들어 있다. 감정을 읽지 못하고 헤아려 이해하
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인식도 있다. 따라서 “
너 T야?”라는 말은 그리 긍정적인 말이 아니

다. 그러나 사고형도 존중되어야 하고, 감정형
도 존중되어야 한다.

사고형인 배우자와 사는 감정형은 사고형에
대해 우선 수용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
다. 감정형인 배우자와 사는 사고형은 감정형
의 반응, 판단, 표현을 넉넉히 받아 줘야 한다.
“왜 울어?”, “이건 옳고 이건 틀리잖아!”, “이
렇게 하고 이진 하지 말아야지”라는 사고형의
접근 방식은 감정형인 배우자를 몹시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전혀 감정
적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감정적
인 표현을 원한다면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감정형인 배우자도 사고형 배우자를 이해하
며 기다려 줘야 한다. “왜 내 마음 몰라줘!”, “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줘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다그치고 서운함
을 표현하기보다
자신을 세세하게
알려주고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하다.
사고형인 당신도
좋고, 감정형인 당
신도 좋다고 고백
하는 부부가 되었
으면 좋겠다.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두란노 편집자가 추천하는 '놓치지 가까운 책'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
하용조 | 두란노 | 13,000원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한동안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었다. 이제는 친숙해지기까지 한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간절할 마음이지 않을까?

‘중꺾마’에 어울리는 오리지널 캐릭터로 나는故 하용조 목사님을 떠올린다. 하용조 목사님의 수많은 저서와 메시지를 선별해 만든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는 365 캘린더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형태이다. 무엇보다 이 캘린더에 ‘중꺾마’의 정수가 담겨 있다. 진리를 향해 끊임 없이 도전해 오는 비전리들 속에 복음과 사

명을 잃지 않고 지켜 나가는 하용조 목사님의 결연한 다짐들이 이 책 한 장 한 장에 가득하다.

해마다 이맘때쯤 출판사들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메시지들이 담긴 365 묵상집이나 캘린더를 하나둘 내놓기 시작한다. 날마다 좋은 말씀이나 메시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동기를 부여받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행간을 넘어 편집자인 내게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더없이 큰 은혜와 축복이다.

많은 도서와 메시지에서 365개의 핵심 문장을 뽑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서 평생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내게 준 위로와 도전을 지금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복음을 살아내고 싶은데 잘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다.

그들에게 용기와 도전, 소망을 갖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를 추천한다.”

록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작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 저자로서 하용조 목사님이 뽑아내는 매일의 메시지는 편집자 이전에 그리스도인인 내게 고스란히 ‘중꺾마’의 신앙을 격려한다.

신앙 도서를 만드는 편집자로서 감사한 것 중 하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헌신한 하용조 목사님의 365개 메시지가 독자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편집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따르고 싶고, 복음을 살아내고 싶은데 잘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이 책의 책장을 넘기면서 ‘그래 오늘은 이 마음을

가지자’, ‘오늘은 이 기도를 드리자’, ‘오늘은 이 고백으로 섬기자’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면 된다. 나 역시 매일 아침 이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기도로, 선포로 살아가기를 수년째다.

하용조 목사님의 많은 저작물 중에서 짧고 핵심적인 메시지로 편집된 이 도서는 한 줄 메시지와 성경 말씀으로 구성돼 짧게 따라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기에 좋다. 특히 전도대상자나 중보기도 중인 분, 질병이나 각종 어려운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선물이 되도록 박스까지 제작해 더없이 좋다.

여러 서점에 벌써 2024 캘린더와 다이어리가 선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용기와 도전,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를 꼭 읽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오늘부터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용조’라는 저자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당당히 이기고 나아가는 ‘중꺾마’의 믿음을 날마다 갖게 할 것이다. 이 단단한 고백과 권면이 더 널리 퍼져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이 주님으로 충만한 나날 되기를 기도한다. / 송민희 부장(두란노 출판2부)

두란노 신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교회〉
김병삼 저 | 두란노 | 16,000원

배자로 살아야 한다.

〈다시, 교회〉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와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문제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병삼 목사의 저서 〈다시, 교회〉에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되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참된 예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믿음을 단련하는 ‘고난’



‘금을 만드는 시간’
김동욱 곡

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이다. 이 찬양은 고난의 시간을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난은 힘들기만 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금을 만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금을 만드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된다.

‘금을 만드는 시간’은 고난의 시간동안 우리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며,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찬양이다. 유튜브, 멜론, 지니, 벅스 등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찬양 ‘금을 만드는 시간’의 가사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 질문하게 된다.

“하나님은 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로마서〉5장에서 “환란은 인내를, 인

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말이다. 이 찬양은 고난의 시간을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난은 힘들기만 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금을 만드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금을 만드는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일상에서 탄소 배출 줄이기
‘물 절약 편’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샤워 시간이 부쩍 늘었다.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가만히 서서 몸을 녹이는 시간이 생겼기 때문이다. 욕조 한가득 물을 담아 몸이 나른해질 때까지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무심코 하는 작은 습관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샤워 한 번에 사용하는 평균 물의 양이 135ℓ다. 샤워 시간을 5분 줄이면 하루 54ℓ, 1년 19,710ℓ의 물을 절약할 수 있다. 샤워 시간을 줄이는 것(물 절약)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설비를 이용해서 가정과 사업장 등에 공급된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필요하고, 설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 물 사용량에 따른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어마어마하다. 1인당 연간 26.6kg을 배출한다. 국내 가구 10%가 물 절약을 실천한다면 연간 40.7기의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물 절약 방법은 변기 수조에 벽돌 넣어두기, 절수기 설치하기, 양치컵 사용하기, 물 받아서 사용하기, 욕조보다 샤워기 사용하기 등이 있다.



온누리교회 이주민선교 30주년 감사예배에서 외국인 목회자들이 특순하고 있다.

이주민과 함께한 감사의 30년!

온누리교회 이주민선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포럼

온누리M미션이 이주민과 함께한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0월 25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온누리교회 이주민선교 30주년 감사예배 및 기념포럼’이 열렸다.

온누리교회 이주민선교 30주년 감사예배는 노규석 목사 사회, 신철우 장로 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외국인 목회자 특순, 감사패 수여, 서경남 목사 축도 등의 순으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는 “이주민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고, 사역의 주체이며, ‘온누리’ 그 자체”라며 “이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이주민을 세워가는 온누리M미션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념포럼에서는 1부 송인선 대표(경기 글로벌센터) ‘한국 이민 정책 방향과 한국 교회의 역할’, 도주명

목사(통합총회 이주민선교) ‘지역사회 이주민의 변화와 교단과 온누리교회의 역할’, 유병설 목사(파주열방교회) ‘지역 이주민 교회와 온누리교회의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념 포럼 2~5부에서는 ‘온누리 외국인 사역자 이야기’, ‘온누리 융합선교’, ‘새로운 이주민 선교 영역’, ‘온누리 이주민선교 현재, 미래’ 등을 주제로 간증과 강의, 비전선포식이 이어졌다. 문의: 031-491-9650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청춘클래스 6기 참가자 모집

11월 5일까지 네이버카페 ‘청춘클래스’

‘청춘클래스 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8일(토)과 25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여의도 정국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1월 5일(일)까지 네이버카페 ‘청춘클래스’(cafe.naver.com/youthclass)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개별 연락한다. 연애 잘하고 싶은 크리스천 미혼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자 30명, 여자 30명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7만 원(석식 포함)이다.

문의: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

NGO 더멋진세상, 모로코 2차 긴급 지원

지진 피해지역에 구호 물품 전달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10월 16일(월) 모로코 지진 피해지역(아마지미즈, 우르간, 이주카크, 쉬소와)에 2차 긴급 지원을 했다. 지진피해를 입은 100가정(약 400명)에 의약품, 매트리스, 식량패키지 등을 전달했다.

모로코 지진 피해지역은 산악지대인데다 눈이나 비가 오면 바위가

떨어져 위험하다. 지진으로 길이 좁아져 차량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금이 간 건물이 많아 긴급구호 물품으로 지원된 팔레트에서 주민들이 잠을 자는 실정이다.

NGO 더멋진세상 모로코 긴급 지원은 지난 9월 29일(금)부터 두 차례 진행됐다.

문의: 02-2271-2246

일.하.세.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11월 4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일.하.세.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도곡교육관 충성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11월 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일.하.세. 아카데미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도록 돕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기독교적 세계관, 직업관, 문화관, 대인관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3488-5382

탁구인 맞춤형도 집회, 젊은 부부 초청 집회

11월 18일 3시 양재 하용조 기념채플, 4시 화평홀

온누리탁구선교회에서 주최하는 탁구인 맞춤형도 집회 ‘핑퐁 in Love’는 11월 18일(토) 오후 3시 양재온누리교회 하용조 기념 채플(4층)에서 막 오른다. 1부 탁구대회, 2부 식사 및 콘서트 등의 순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여성민 목사(전 도사역본부장)가 설교하고, CRUX, 양영자 선교사(전 청소년 탁구 국가대표 감독), 가수 이무송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핑퐁 in Love’ 또는 010-8761-4178(이판례 총무)로 문의하면 된다. 탁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2인 3만 원.

젊은 부부 초청집회 ‘동행’은 11월 18일(토) 오후 4시 양재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강남D공동체, 서초D공동체, 푸른누리공동체가 주관한다. 성인공동체에 등록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성인공동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경적 가정관과 양육관을 세우도록 돕는 자리다. 강부호 목사 환영 인사, 특순, 이정선 사모(이재훈 담임목사 사모) 강의, 성인공동체 및 교역자 소개, 블레싱, 테이블 교제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로 하고, 문의는 이메일(1040pt@gmail.com)로 하면 된다.



장로사관학교 수료식 및 종강예배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56명 수료

2023 장로사관학교 수료식 및 종강예배를 지난 10월 21일(토) 오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요나단의 섬기는 리더십’을 주제로 설교했고, 수료생 대표 간증과 우수과제 시상 등이 이어졌다.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 56명은 지난 8개월 동안 기관

및 캠퍼스 탐방, 수련회, 아웃리치,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러브소나타 마야기 참가 등의 과정을 소화했고, 전원 장로고시에 합격했다.

신재영 장로장립후보 안수집사(양천공동체)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는 섬김의 장로의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했다.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크리스천 Z세대를 위한 결혼문화세미나(만남과 데이트)’가 11월 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만29세 이하 크리스천 청년을 대상으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100명, 입금 완료 순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2만 원(점심 포함).

이서진 목사(허브대학부), 조용호 교수(전 전주비전대 교수), 강미향 목사(온누리교회 가정사역 담당)가 강의한다. 개그맨 조래훈 MC와 함께하는 아이스브레이킹, Unknown Crew의 워십댄스, 결혼 선배들의 연애토크쇼 등도 이어진다.

문의: 010-5628-8872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4일부터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부모반)과 화평홀(청소년반)에서 진행된다. 참

가신청은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나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신청 학생의 부모다.

문의: 02-793-9686

목회자와 선교사 위한 ‘창조과학탐사’

11월 6일과 7일 전라북도 일대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창조과학탐사’를 11월 6일(월)부터 11월 7일(화)까지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김제 3자교회, 부안 채석강 등지에서 한다. 11월 6일 오전 7시에 출발한다. 회비는 13만 원.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창조과학탐사에서는 김홍석 교수 ‘교회에 침투한 유신진화론’, 하주헌 교수 ‘노아홍수와 대격변’, 한필규 장로 ‘지층과 화석’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10-7636-6305

10월 세례명단

■서빙고

고 원 711105
김문희 950607
김용욱 550722
김현태 771206
나춘자 430401
사미순 620125
이승철 731029
임정민 850617
정영자 490303
정유경 900516

■유아

김수안 211005
김완영 고은지
백은진 220224
백은준 최지은
백진우 161122
백은준 최지은
이예일 211025
이진호 강영주
전주연 220805
전종대 박건희
전지완 191202
전평강 김보라
황다현 220917
황규태 남보람

■양재

김상화 930413
김형섭 810905
류승호 020430
이소현 910627

■입교

백선욱 830702

■유아

윤혜은 190817
윤영재 정하영
임리준 210124
임지산 김지희
장이레 220519
장주용 송임정
장하임 220519
장주용 송임정
한은호 221026
한호준 조은혜

<대학청년>

■여호수아
김성민 800203

■한지윤 890720

입교
이은비 911202
이준기 980603
최윤정 920705

■요셉

안지현 841115
기타
김재원 060710
김혜주 071024
마그렛 060831
마이클 050321
신정우 071214
유나영 061109
제레트 050323
최효빈 070222
치아파 050608

■J4U

고정호 900920
김경진 920215

■입교

안명환 950907
유아
권효주 230323
권용욱 권하은
김도건 230322
김용근 조정임
이세나 230425
이준형 박혜진

■SNS

김준현 850403
엄지현 931110
주사랑 920223
구동희 890201
홍정아 010626

■입교

김반비 821103

■유아

강이레 221005
강명훈 오세정

■W

입교

장우혁 970920

■ 일.하.세. 아카데미 수료 간증



/ 김상수 집사(인천온누리교회)

일터는 하나님의 선물,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

“나는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직장에서 근무한 지 벌써 20년 됐다. 근무하면서 동기부여가 된 것은 ‘주인의식’이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보상의식’이었다. 기업의 특성상 밀어내기식 인사로 인해 개인적으로 부당한 상황을 마주한 적이 있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라는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그 고민과 함께 불평과 매너리즘이 깊어져 무기력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일.하.세.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하.세. 아카데미 첫 시간에 받은 ‘일터기도문’을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읽으면서 기도했다. 조원들이 함께 있는 단체채팅방에서 기도한 것을 공유하기도 했다. 혼자하는 것보다 함께했더니 더욱 힘이 나고 든든했다.

일터기도문이 나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줬다. 마음가짐이 달라졌고, 업무시간이 귀중해졌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사랑스럽게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해 달라져야 하는가?’를 고민했다. 계속 강의를 듣고, 나눔을 하면서 일터와 영성이 분리되지 않는 것, 성공과 형통에 대한 것 등을 배웠다. 장로님의 강

의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께 하듯 하겠다’는 선포가 이상하게 직장에서는 잘되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 이익은 회사 주주가 챙겨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일터도 창조하셨으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지가 명확해졌다.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늘 주께 하듯 하겠다는 기도가 있으면 그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나의 사명이다. 큰 곳에서 큰일을 도모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임을 깨달았다. 지금의 일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적의 환경임을 알게 됐다. 세상의 물질을 기준으로 나에게 유익이 더해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일터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기대하는 게 가장 큰 동기부여다. 나는 매일 아침 일터와 동료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일터의 외형적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나의 변화를 하나님이 아신다.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이광원 성도(서누리공동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내에게 회복사역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이하 파워임팩트)를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앞섰다.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자녀가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 염려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8주나 토요일 저녁에 참석한다는 게 걱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 아웃리치도 참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과연 수료할 수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걱정이 무안할 정도로 귀한 시간을 마련해 두고 기다리고 계셨다.

파워임팩트 2주차 첫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재미있다”고 말하는 자녀를 보고 참 감사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반년 정도 자녀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했지만, 결론은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을 경험하고 있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지켜보기로 마음을 정했다.

파워임팩트 부모반에서 들었던 강의를 통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자녀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로 마음먹고 노력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마음을 줄이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었다. 어느덧 8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자녀들이 필리핀 아웃리치를 가는 시간이 다가왔다. ‘가서 잘 지내고 올 수 있을까?’, ‘맡은 일들을 잘하고 올 수 있을까?’ 등 여러 걱정을 가득 안고 보냈다. 며칠 되지 않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얼마 뒤 마음을 잘 다스리며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전이였다면 실망하고 포기했겠지만, 스스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야기 보파리를 풀어내는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파워임팩트를 통해 부족한 부모와 자녀를 불러 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파워임팩트에서 함께한 자녀들과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한다.

■ 어느 목회자의 편지



/ 김철회 목사(안산동부교회)

사르밧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 부부는 늦깎이 목회자입니다. 목회하기 전에는 인쇄업을 하면서 근근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부모 없는 고아를 입양해서 양육한 지 34년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일곱 명의 아들, 두 명의 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홉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양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친척 목사님의 소개로 중학교 서무계에서 일하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트럭 행상과 인쇄업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듯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육적인 자녀 대신 영적인 자녀를 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34년 전부터 아내와 함께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슴에 안고 양자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남 바나비는 미숙아였습니다. 미혼모가 어떻게든 낳지 않으려고 갖은 낙태 방법을 다 썼다고 합니다. 바나바 친모가 다니던 산부인과 원장이 크리스천이어서 낙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

난 아이가 우리의 첫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아홉 자녀는 누구 하나 그늘이 없습니다. 8인승 승합차로 교회 가는 것을 즐겨워하면서 자랐습니다. 슈퍼맘인 아내는 ‘아무리 바빠도 성경읽기와 기도를 빼 수 없다’를 자녀 양육 철칙으로 세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영적으로 낳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큰 감격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모나지 않고 잘 자라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양재온누리교회 이웃사랑팀에서 사르밧 프로젝트 일환으로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가족이라서 쌀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쌀을 받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안산동부교회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해서 음식을 먹이고, 선물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8년째 해 오는 사역입니다. 온누리교회의 사르밧 프로젝트 덕분에 그들을 먹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의 불쌍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는 우리 부부의 목회 철학이 사르밧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빛나게 된 것 같아 깊이 감사합니다.

■ 젊은 부부학교 수료 간증



/ 이창엽, 차은빛 부부(경기A공동체)

우리 부부의 변화!

우리 부부는 맛벌이와 육아로 대화할 시간도 없이 한 주를 숨 가쁘게 보내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고갈되고 있었다. 지난해 초 회사에서 진급 차수였는데 진급 누락 통보를 받았다. 동시에 둘째를 유산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무능력감, 여자로서의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첫째 아이가 걱정돼 모든 감정을 덮어두고 표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굶은 마음의 화살이 신랑에게 향했다. 신랑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힘들어했을 때 신랑이 위로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처럼 생각됐다.

젊은 부부학교 첫 주차를 마친 주일날 신랑과 크게 싸우고 예배 중간에 뛰쳐나왔다. 교회 앞 벤치에 앉아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들을 쏟아내며 싸웠다. 그 와중에 갑자기 내 안에서 첫 주차에 들었던 말씀이 떠올라 먼저 신랑에게 사과했다. 내가 상대의 말을 수용하게 하셨다. 남편의 감정도 금방 풀리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

둘째 주와 셋째 주 부부학교에서 하나님이

내게 “너와 남편은 내가 목숨으로 구한 사람이다. 네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말씀하셨다. 가정은 결혼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매일 만들어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 원리를 배우면서 남편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는 생각이 깨졌다.

우리 부부의 표면적인 변화는 말투다. 예전에는 대체로 단답형의 감정 없는 말투였다. 이제는 부드럽게 말하려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일과 상황, 감정을 궁금해하는 관계가 되었다. 조 나눔도 처음에는 조장님이 매주 연락 오는 게 부담스럽고 나눔도 형식적인 느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장님이 언제쯤 연락하려나 기다려진다.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사는 부부들을 보면서 나눔에 관심이 생기고, 마음과 귀가 열렸다.

앞으로 계속 보수공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싶다. 매주 야근하는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남편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전도는 동사(動詞)다!



이동욱 장로
(부천온누리교회)

지난 9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부천온누리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온누리전도학교 ‘홈커밍데이’ (이하 홈커밍데이) 행사였다. 부천온누리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온누리전도학교 소속 전도사역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전도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전도 열정이 불타오르는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부천온누리교회와 온누리전도학교의 전도 커뮤니티를 확대하는 자리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잠시 쉽표를 찍었던 전도 활동의 새로운 힘찬 도약을 선포하는 킥오프(Kick Off) 날이었다. 홈커밍데이 행사는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예배, 2부에서는 강의와 블레싱 시간을 가졌다. 1부 예배에서는 최형수 장로의 기도, 정재욱 목사의 설교 등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오성민 집사의 아이스브레이킹(Ice Breaking)과 이영혜 권사(서빙고온누리교회)의 전도 강의가 있었다. 이영혜 권사는 홈커밍데이의 주제인 ‘전도하면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어 부천온누리교회 전도사역팀 담당인 내가 사역자 소개와 전도 비전 제시를 했다.

홈커밍데이 조별 나눔 시간에는 ‘전도희망 사역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전도하면 행복합니다’ 강의에 대한 소감을 나눴다. 자신의 전도 비전을 나누는 소그룹 나눔도 했다. 아이스브레이킹으로 서먹서먹했던 참가자들이 마음의 벽을 조금씩 깼다. 그리고 사역자들끼리 각자 세운 전도 비전을 공유하면서 전도

열정이 불타올랐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전도를 향한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다.

“전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動詞)다!” 부천온누리교회 전도사역팀은 전도를 살아 움직이는 동사(動詞)로 만들기 위해 여러 계획을 세웠다. 앞으로 부천온누리교회에서는 가두(노방)전도, 차세대전도, 군인전도, 의료 선교팀과의 융합전도, 전도 아웃리치(Outreach) 등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10월부터는 5개 가두(노방)전도팀을 가동하고 있다. 전도지역은 부천 시내 공원, 시장, 전철역, 터미널 등 인구가 많이 모이는 인구 밀집 지역이다. 또한 차세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앞에서도 전도 활동을 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의료사역팀과의 융합전도를 하려고 한다. 농촌으로 떠나는 전도 아웃리치도 할 것이다. 부천온누리교회 직속 전도콜센터를 개설하고 성도들과 함께 전도 현장으로 뛰어 들 계획도 세우고 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지인 등을 전도해달라고 의뢰하면 열심히 훈련받은 전도사역자들이 투입될 것이다. 부천온누리교회가 전도사역의 부흥기를 열어갈 거라고 기대한다.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전도 역량을 많이 잃어버렸다. 전도에 대한 마음도 식고, 전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상황에서 부천온누리교회 전도사역팀이 전도의 마중물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땅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는 역할을 부천온누리교회 전도사역팀이 해내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전도가 예배 회복에 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전도 열정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사역칼럼

새로운 이웃 아프간 사람들!



구리빙스턴 선교사
(온누리M센터)

인천시에는 13만 명 정도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2만 명 정도가 무슬림이다. 아프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프간 사람들이 인천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다. 아프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무역업, 노동자, 학생 등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그에 더해 ‘미라클 작전’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함락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주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과 KOICA와 협력해 아프가니스탄인들을 구출해 국내로 이송한 작전)으로 들어온 24가정이 인천에 정착하면서 아프간 사람들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인천 옆 김포, 시흥까지 포함하면 아프간 기여자 가정만 35가정이다.

외국인을 돕는 단체에서는 이슬람권 외국인을 상대적으로 기피 대상으로 여긴다. 음식 취향이 까다롭고, 하잡, 라마단 등 각종 율법 속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온누리M센터에 그들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온누리M센터와 인천에 있는 몇 개 지역 교회들이 힘을 합해 아프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연수역 앞에 있는 카페 ‘요셉의 창고’에서 어머니들 한국어 수업과 유아들을 돌보는 모임을 시작했다. 이 모임 덕분에 아프간 어머니들이 대면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되었다. 겨울방학에는 2달 동안 아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캠프를 실시했다. 인천학익역고 학생들이 학습 멘토 봉사자로 참여했

다. 시간을 내준 학생들에게 감사하다. 아프간 사람들을 위해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12일 연수구의 아프간 여성들 15명과 인천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만났다. 그날 이후 아프간 여성들을 위한 재봉교육, 대면 한국어수업 6개 팀, 아프간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캠프 등을 열게 되었다. 재봉교육에는 아프간 여성 8명이 참여했다. 여름방학 학습캠프에는 아프간 학생 30~40명이 매주 참석했다. 김포에서도 여름방학 학습캠프에 참여했는데, 이를 위해 김포공동체 성도님들이 차량 운행을 섬겨주셨다. 지난 8월 5일에는 영등포구로공동체의 도움으로 아프간 지체 75명이 국립박물관과 광명동굴로 학습 여행을 다녀왔다.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견되는 유물들과 비슷한 유물들이 한국에 많은 것을 놀라워했다. 아프간 지체들을 위해 때마다 도움을 주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프간 아이들을 위한 축구 교실을 열고 있다. 인천은혜의교회 집사님인 이성규 감독님이 섬겨주고 계신다. 여러 지역 교회와 온누리교회 공동체의 도움으로 인천의 아프간 가정들이 교회를 친정처럼, 집 마당처럼 여기게 되었다. 성도님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었고, 일부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지면을 빌려 그 소중한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다.

우리가 바라는 일은 이와 같은 변화가 지속돼 아프간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빠르게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계신 동역자님들께 감사하다. 특히 지난 8월 14일 소천하시기 바로 전까지 20여 년 동안 아프간 기도모임에 함께하시고, 여러 가지로 섬겨주신故 박현옥 권사님께 감사하다.

신앙에세이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차를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 앞에 설 때가 있다.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나의 기분이 묘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신호등의 파란불을 만날 때 나는 차를 손살같이 내달려 교차로를 빠져나간다. 갑자기 신호등의 불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달리면서 기분이 상쾌해진다.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운전해야 하는 나에게 파란불은 기쁨의 선물이다.

신호등의 노란불을 만날 때 나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인다.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가야 하는 나에게 노란불은 한숨을 짓게 만든다. 또 노란불을 만나면

조금 더 일찍 갔으면 하는 아쉬움과 신호등을 통과하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한다.

신호등의 빨간불을 만날 때 나는 아무리 바쁘고, 빠른 속도로 달려왔더라도 완전히 멈춘다. 그래서 운전하는 나에게 빨간불은 답답함과 무기력을 안겨준다. 빨간불은 다시 파란불이 켜질 때까지 나를 그 자리에 꽂꽂 묶어둔다.

우리 인생에도 신호등이 있다. 교차로에 있는 신호등처럼 인생의 신호등에도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이 켜진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다. 내가 계획한 것과 마음먹은 일이 순풍에 돛단 듯 술술 풀리는 순간이 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의 파란불이 켜졌을 때다. 파란불 신호는 인생을 성공이라는 목적지에 데려다준다. 그래서 인생의 파란불 신호를 받고 있으면 인생이 편안해지지만, 동시에 교만해진다. 죄인 된 인간은 파란불의 신호가 계속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믿게 된다. 그래서 죄

인생의 신호등 앞에서

인 된 인간에게 파란불 신호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다. 햇빛만 내리쬐면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것처럼, 인생의 파란불만 계속 켜지면 하나님 없는 삭막한 사막이 된다.

인생의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지면 잘나가던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건강했던 몸이 이상 신호가 오고, 잘 자라던 자녀들이 반항하는 그때가 인생의 노란불을 만날 때다. 우리는 인생의 노란불을 만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러다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인생의 신호등에서 빨간불을 만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게 된다. 변창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행복했던 부부가 과정을 맞고, 건강했던 몸이 시한부 선고를 받는 그때가 바로 인생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다. 사람들은 빨간불을 만났을 때 절망과 포기 마음을 갖는다. 그래서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끼기도 한다.

우리는 인생의 파란불, 노란불, 빨간불을 경험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남은 한해를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인생의 파란불이 켜졌을 때 모든 성공을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심을 감사할 때 더 큰 성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노란불이 켜졌을 때 ‘이제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며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을 소유할 때 더 큰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빨간불이 켜졌을 때 ‘이제는 모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절망과 포기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인생의 신호등에 어떤 불이 켜질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앞으로 인생이 더욱 기대될 것이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195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05 서울시 강릉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이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hisainsait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철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담당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환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호 김성중 김승걸 김승환 김영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경희 김중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웅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배대식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신현민 스티브차 송동주 안사뮈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원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지운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윤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중희 허원희 황종연				
●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중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영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황유일				
● 목사(준전임) 구해미 조호영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중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수혁 김성순 김승연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용배 김원규 김원숙 김원준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중성 김중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원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한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승 박석봉 박석근 박찬빈 박영태 박용국 박중현 박두원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김기태 김기태 김도태 김동규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조 신만인 김종국 김지선A 김지선B 심재욱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진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안영 유재진 유 형 윤기훈 유성열 유의준 윤정석 윤영오 윤현태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영하 이우근 이웅대 이장로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웅경 이용하 이우근 이웅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준승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정양호 정형준 정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국 정보원 정순봉 정영열 정희화 정재택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국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조수일 주중일 자성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민 최 명 최순수 최진성 최창규 최정호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태 한형식 이광순 이광수 이형석 조종일 홍기명 홍대표 홍병식 홍중철 홍정표 황영욱 황용오 황의서				
● 사무장으로 강경국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곽희준 권순형 권오섭 권오혁 김세중 김경도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연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상집 김상철 김성현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순 김영옥 김영옥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중원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수 김형걸 김형준 김형철 김희선 김희수 김효규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영태 남규광 해드레스 박자인 남정진 남주원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상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규명 박우형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규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지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연 황재익				
● 영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남영태 류수광 해드레스 박자인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장철 황용식				
●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드레스 박자인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장철 황용식				
●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진아 김세일 김은혜 김경걸 김정환 김지영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정영 최영은 최유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수현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경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노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오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김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진 조영택 천은진 최숙희 최영진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박산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택 이민욱 이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아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OMA담당목사 김형철 마크췌 심상현 이성권 이정영 이종재 정장철				
●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정은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향선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중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병환 손 답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영순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우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재훈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주지은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만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민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훈 원우미 이만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흥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성진 정은숙 정희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매구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한스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준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식				
●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현태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윤인 Henry Park Hyun Chang				
● 영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중수 윤창근 윤한돈 임정식 임현식 오명진 정철환 최태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성 김홍규 남병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영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김경환, 독고춘(정동제일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김지석(정동제일교회)
김용범, 손인숙(온누리교회)의 딸
김시유(정동제일교회)

11월 4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류연엽, 채미정(기쁨의교회 안수집사, 권사) 아들
류민규(온누리교회)
최병무, 정수진(더사랑교회 집사, 권사) 딸
최소영(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자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제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장소: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술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별틀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광고

■ 소천
10/18(수) 강남C 김민성 성도 모친상 고 최월선
10/20(금) 이촌 김정숙 권사 모친상, 노함강 집사 빙모상 고 이범녀
10/20(금) 중종로 박은규 성도 부친상, 최재관 성도 빙부상 고 박영길
10/20(금) 동작 엄지용 권사 모친상, 정이일 집사 빙모상 고 공병옥
10/21(토) 관악금천 이호연 집사 배우자상 고 김원숙
10/23(월) 서대문 전영봉 성도 모친상, 안계현 성도 시모상 고 권정희
10/23(월) 양재온누리교회 김정희 목사 시모상 고 이정운
10/24(화) 분당A 김희옥 성도 부친상 고 김홍환
10/24(화) 분당B 원종택 성도 자녀상 고 원지선
10/24(화) 중종로 계영수 성도 모친상 고 홍영숙
10/24(화) 마포 신연수 성도 부친상 고 신희상
10/25(수) 성북 김기원 성도 남편상 고 김호진 성도

■ 광고
온누리선교재단 재산증합, 영업배상, 가스배상
전속계약업체 선정
기간: 2024년 1월 1일~2025년 1월 1일(추가로 최대 1년간
지 연장 가능)
대상: 입찰 물건 72건
방법: 일반경쟁입찰
자격: 지급여력비율 180% 이상인 업체
절차: 마감 11월 17일, 결과 11월 21일
문의: 02-3215-3136